



축산학도로서 미리가본

축산물 등급판정사 체험

강원대학교 : 정웅진



정신없던 기말고사 기간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싶은 학생은 내일까지 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.

그동안 등급판정소와 도축장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어 그 길로 과사무실에 가서 현장실습을 신청했다.

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한 후 몇 주가 지나 가락동으로 현장실습을 가라는 연락을 받고 1월 12일 첫 실습을 위해 농협서울 공판장에 도착했다. 도축장 주변으로 줄줄이 주차 되어 있는 소들과 어디에선가 내 코를 자극하는 비릿한 냄새는 도축장에 도착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다.

먼저 사무실에서 축산물등급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흰색 가운과 안전모를 착용한 후 현장에 들어섰다. 몸을 애워씨는 찬 기운보다도 도

체 상태로 레일에 걸려 있는 소와 돼지를 보면서, 10여일간의 실습을 하며 많은 수의 소도체와 돼지도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다.

이렇게 시작된 실습에서 처음 보는 소의 도체는 나에게 모두 똑같이 보였지만, 하루 이를 지나면서 어떤 것이 좋은 소이고,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인지를 차근 차근 배워가며 기초적인 등급판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.

현장실습중에 면적자를 이용해 등심단면적을 측정하는 방법과 등지방두께, 근내지방도 판정하는 법을 배웠으며 성숙도, 지방색과 육색 또한 배울 수 있었다. 그 중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근내지방도를 판정하는 것이었고, 이것을 느낄 때쯤에 왜 신입 판정사들에게 양성교육을 다른 직장보다 오래 시키는지 이해가 됐다.

지금 생각해 보니 등급판정소에서 있던 보름 정도의 실습기간은 대학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학습 외에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라고 생각했으며, 대학 4학년간 배웠던 것을 기초로 몸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.

이제 4학년이라 학교생활과 취직 준비를 하다보니 이번 실습이 마지막인 것 같아 너무 쉽고 고마웠던 경험이었다.

그리고 사무실에서 3F운동을 눈여겨 봤는데, 나도 앞으로 어느곳에 있든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굳게 자리를 잡아 멋진 모습으로 축산물등급사님들을 뵙기를 바란다.



송승원: 학점과 무관하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현장실습을 무사히 마친 웅진아~! 동오야~!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잘 살길 바란다.

서강석: 현장에서 등급사들의 근무지세를 배우라고 강조하셨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고개 넘어 당신들의 미인도를 배웠습니더

박기욱: 잘 먹고 잘 살아라~! 술 먹고 싶을 때나 군체에 오면 꼭! 연락하세요! ㅎㅎㅎ

허운정: 이런 멋진 친구들이 있어 우리나라 축산업의 앞날이 더 밝아질 것 이라는 행복한 기대감을 가졌다. 동오야 군대 잘 갔다 와라~!